



3면

"스카우트 철수, 한국 정부에 큰 타격"

# 전주매일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음 6월 21일) 제332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잼버리 K-팝 공연 11일로 연기'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향후 운영 계획 발표  
블랙이글스 에어쇼 성료·영의 문화체험 시작  
잼버리 K-팝 공연은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서 6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케이팝(K-pop) 콘서트'가 오는 11일로 연기됐다. 장소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원회는 6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운영 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전에 관한 문제는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되기에 오늘 밤 예정돼 있던 K-팝 콘서트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2023 호주 아발론 국제 에어쇼에서는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에어쇼가 진행됐다. 블랙이글스는 새만금 잼버리장 상공에서 '꿈'을 주제로 화려한 곡예비행을 펼쳤다.  
델타지역 대집회장에서는 에어쇼 내용을 설명하고 해당 시간에 아이스크림 2만여개도 배부했다.  
또 7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대집

회장에서 '새만금 갯터널' 경연이 열린다. 지난 6월말까지 SNS를 통해 신청을 받아 영상을 통해 예선을 거친 독일과 벨기에 등 17개국이 참여하며, 참가자들은 각 국의 전통춤과 노래 등 장기를 선보이고 경연이 끝나면 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영내 활동이 축소되는 상황을 고려한 전국 곳곳의 관광 및 영의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17개 시·도의 협조를 받아 총 90개 프로그램을 추가 마련했고 스카우트연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충남 보령 머드 축제, 충북 청주 청남대 방문, 경북 안동 도산서원 유교문화 체험, 한국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최첨단 산업현장 방문 등이다.  
조직위 측은 참가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말을 들었고 일부 대원들도 만났는데 만족하고 한국 준비에 감사하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스카우트 대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답사를 나누는 모습을 봤다. 행사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로 문화교류를 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면서 불편한 점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잼버리를 전폭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상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특히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폭염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지자체, 군, 민간이 최선을 다해 잼버리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니 잼버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팝 콘서트는 오는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관영 도지사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팝 콘서트는 잼버리 대회의 하이라이트"라면서도 "극한 폭염이 공연환경을 악화시키는 전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콘서트 장소와 날짜를 변경하고 프로그램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걱정 장소와 날짜를 모색해 왔다"면서 "퇴행성이 진행되는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콘서트만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K-팝 콘서트 장소 선정에는 3만명이

넘는 수용인원과 안전관리, 새만금에서의 이동조건 등이 고려됐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새만금 잼버리 아영장에서 약 50여분을 버스로 이동하면 되며, 수용 관중규모가 4만2,000여명에 달한다. 또 관중석의 88%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안전관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무엇보다 비안과 조풍거리가 된 새만금 잼버리의 유종지미를 거두겠다는 전북도민의 열정과 바람도 작용했다.  
K-팝 콘서트에 출연할 아티스트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팝 콘서트가 전주에서 치러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도움도 있었다.  
잼버리 관계자에 따르면,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12일 전북현대와 수원 삼성의 K리그 홈경기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전북현대포터스의 협조로 이번 콘서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전북현대의 홈경기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광주에 위치한 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현대축구단이 K-팝 콘서트를 위해 다른 구장으로 옮겨서 경기하도록 협조해줘서 감사하다"면서 "행사에 대한 잘못을 따지는 것은 행사를 마친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도전정신과 개척정신·화합이라는 스카우트 정신을 다신한 번 새기고 서포터해 주는 모든분들과 함께 심기일전해서 성공적인 잼버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6일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6일 부안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새만금 잼버리의 난맥상과 관련 집행위원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 지사, "잼버리 집행위원장으로 대단히 송구"

새만금 잼버리 난맥상 관련 첫 사과... "모든 역량 쏟을 것"  
"잘잘못 따지는 것은 행사 마친 뒤 해도 늦지 않아" 강조

부안에서 열리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난맥상과 관련해 정부와 여야 조직위원회가 서로 남탓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잼버리 집행위원장이 김관영 도지사가 처음으로 사과했다.  
김 지사는 6일 부안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를 찾아 "새만금 잼버리 성공을 위해 전북도민들이 하나가 돼 힘을 모으고 있다"며 "많은 걱정을 끼친 점을 집행위원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소방 자원봉사 등 전북의 모든 역량을 쏟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회장실 문제 등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서 속삭이며 머물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관영 도지사는 "잘잘못 따지는 것은 행사를 마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행사를 잘 치르고 한국인의 자력을 보여줄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제8회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55년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용어를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전주페이퍼

**"새만금 잼버리 안전하게 진행토록 지혜 모으자"**

전북애향본부 · 전주상의 등 도내 163개 단체들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 할 때 성공적인 대회 되도록 민간차원에서 적극 지원"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등 도내 163개 시민사회단체와 경제단체는 6일 새만금 잼버리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폭염 속에 준비소홀과 부실운영 등 비판이 있지만 국제대회를 개최 도중 포기한 사례는 없다"며 "조직위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했다.  
이들은 "중도 포기는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상실감뿐만 아니라 재도약을 열망하는 도민 영원에 큰 상처를 안길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때"라며 "폭염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민간차원에서 서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기를 극복해 세계 잼버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다면 전북은 또 하나의 획기적인 성장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포기하지 말고 힘을 모아 나가자"고 호소했다. /김재훈 기자

**"잼버리 아영장서 성범죄" 전북연맹 80명 퇴영 결정**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아영장 영지에서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면 3면)  
전북연맹 비마이프렌드 관계자는 6일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연맹 소속 여성 지도자가 사위를 하는 것을 외국인 남성 이 훔쳐보다 발각했다"며 "이와 관련, 조직위 측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직위원회는 적발된 외국인 남성에게 대해 경고 조치를 하는 것에 그쳤다.  
전북연맹 비마이프렌드 측은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대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무서워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기 때문에 퇴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에서 잼버리에 입소한 인원은 청소년 72명을 비롯해 80명이다. /뉴시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